

2022 OPEN! IV.

흔들리지 않는 중심 '디그니티' (승리의 열쇠)

[사사기 7:5-6] 5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 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핏을 것 같이 혀로 물을 핏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핏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1. 구약의 전쟁

[사무엘상 17:47]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구약은 전쟁의 역사이다. 그래서 구약의 전쟁은 표면상 이스라엘의 전쟁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있다. 전쟁은 생명에 관한 것이다. 이기면 사는 것이고, 패배하면 죽는 것이다. 승자는 모든 것을 얻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그래서 전쟁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전쟁은 실전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전략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 구약 전쟁의 공통점은 전략상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없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내 힘을 의지하면 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한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 이겨야 한다. 원수 마귀의 공격은 맛보기 정도가 아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다. 성도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달려든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예외가 없다. 하나님을 절대적 믿고 신뢰하면 이긴다. 내 힘과 생각을 의지하면 패하게 된다. 전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승리이다.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2.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

오늘 본문은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이다. 미디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모세이다.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 머물게 된다. 그곳에서 아내 십보라를 얻게 된다. 십보라는 미디안 족속의 후손이다. 미디안 땅은 광야이다. 즉, 거주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근 나라들을 돌며 장사를 하는 상인의 삶을 살았다. 요셉을 샀던 상인들이 바로 미디안 상인들이다.

[창세기 37:28] 그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미디안 족속들은 움직이는 상인들이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무장이 필요했다. 문제는 그런 무력을 바탕으로 성읍이나 마을을 약탈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과의 갈등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낙타를 타고 움직이는 전차부대와 같은 미디안 족속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착해야 얻을 수 있는 농작물이었다. 고기는 얻을 수 있으나 농작물을 얻을 수 없었기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골짜기나 동굴로 피신해서 생명을 보존해야 했다.

기드온이 싸워야 하는 미디안 족속의 수가 13만 5천명이었다 (사사기 8:10).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고, 강력한 용사들이었다. 이런 미디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 모인 사람이 3만 2천명이다. 고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의 수이다. 13만 5천명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의 수는 3만 2천명이다. 싸움이 되지 않는다. 불가능한 싸움이다 (구약의 모든 싸움의 공통점). 3만 2천명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다.

[사사기 7:2]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 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하나님이 수를 줄이시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목표는 선명하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우리 앞에 미디안 족속과 같은 엄청난 군대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의 결과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인간의 능력이 제로가 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100이 된다. 철저하게 인간의 능력이 비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자신의 생각, 경험, 능력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너무나 명료하다.

3.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기드온은 먼저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낸다. 돌아간 백성의 수가 2만 2천 명이다(3절). 남은 자가 만 명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하신다(4절). 그리고 기드온에게 물 가로 내려가라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남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1) 하나님의 시험 - 선택을 위해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 놀랍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능력, 경험, 전투력'을 측정할 것이다. 미디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 모여있는 3만 2천명은 용사가 아니다. '기드온의 삼백 용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만약 남아 있는 사람이 용사라면, 하나님의 시험은 그들의 전투력을 시험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다르다.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다. 모든 그런 소망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소수이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 다양한 것은 세상의 능력으로 우리를 뽑지 않으신다.

[고린도전서 1:27-29]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 하나님의 시험 - '시험하다'(차라프)

어떤 사람의 자격을 보는 행위가 아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분류하고 고르다' 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용사의 자격이 있어 뽑힌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사람을 뽑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는 동일한 영적 원리가 있다. 29절을 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이유와 같다. 왜 하나님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나타낼 사람을 선별하시는가? 그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다. 평소에는 모른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구별된다. 자신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이야기 한다. 미디안 족속과 골리앗,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원수의 기운에 압도 당하게 된다. 그러면 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구별하는 과정을 두신다.

4. 디그니티의 사람

[사사기 7:5-7] 5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핏을 것 같이 혀로 물을 핏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핏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300명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들의 물먹는 태도로 구분하셨다. 세상의 용사가 아닌 하나님의 용사들은 누구인가? 어떤 태도를 가진 자들인가? 6절에 '무릎을 꿇은 자'들이 아니다. 엎드려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자들이 아니다. 물을 움켜 마시는 자들이다. 이들의 태도가 너무나 극명하게 구분된다. 이들의 태도를 보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단어가 '디그니티(Dignity)'이다. 뜻은 (품위, 위엄, 존엄성, 자존감) 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디그니티'가 있는 사람이다. 가난해도,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의 비교에 자유로운 당당함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은 '왕'의 일이다. 예수님은 왕이셨다. 세상은 그를 목수의 아들로 천박하게 여기셨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당당함이 '디그니티'이다. '디그니티'는 세상이 주는 진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말한다.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나-이'를 말씀하셨다. 나의 존귀함과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증명받지 않으신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다. "I am who I am") 다윗은 소년이지만 '디그니티'가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바로 다윗의 당당함이다. 우리가 누구인가? 땅에 있는 것만 먹는 닭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1) 에서의 저주 - 존귀함을 모른다.

에서의 저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니 천박하게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이다. 이 저주를 끊어야 한다. 아무나 주님 일하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디그니티를 아는 사람을 세우신다.

(2) 기사

기사 작위를 받은 기사는 명예에 목숨을 건다. 자신에게 기사 작위를 준 왕을 위해 목숨을 건다. 기사는 곧 명예이다. 디그니티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디그니티'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당당하게 서라.